

# 「電氣協會誌」

## 創刊에 붙임

電氣技術文化社  
社長 金 瑞 奩

國內 電氣界를 總網羅하여 年來의 宿願이던 발전事業들을 내걸고 單一 組織體로서 大韓電氣協會가 創立되었다는 事實은 晚時之嘆은 있으나 祖國의 經濟建設과 落後된 產業構造의 近代化에 一大 轉機가 되리라고 믿고 微力하나마 電氣技術雜誌 刊行에 從事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劃期的인 業績을 높히 評價하는 바이며 더구나 今般 그 事業의 一環으로서 會誌를 發行케 된대 對하여는 同好人의 立場에서도 雙手로서 歡迎하는 바이다.

오늘날 電氣란 곧 한 나라의 產業 및 國民生活의 바로미터로서 國力과 文化水準의 尺度가 되고 있음은 自他가 共認하는 常識인 바 年間 10,800億Kwh를 發電하는 美國이 世界 最富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웃 日本이 年間 1,403億 8,300萬Kwh의 發電量을 誇示하여 東洋 第一의 富強과 文明國임을 自負함은 當然之事가 아닐 수 없다.

回顧컨대 西紀 1900年 우리나라에 最初로 電氣가 들어온 後 한때 193萬Kw의 發電施設容量을 記錄했던 때도 있었지만(南北韓合計) 半世紀 동안의 日本 植民地統治와 8·15 直後의 政治的인 混亂, 그리고 6·25動亂을 겪으면서 電力은 거의 全滅狀態까지 急轉直下하여 制限送電等 大幅的인 負荷制限이 實施되었고 이로 인한 오랜 電力飢饉은 마침내 우리나라의 產業發展을 阻害했으며 國民生活의 現代化를 가로막아 經濟的 文化的 後進性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왔음은 잘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그러나 지난 해 봄부터 實施된 無制限送電은 그것이 비록 正常的인 電力需要成長을 同伴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工業化 以前의 既存 電力需要에 對한 需要供給의 바란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치더라도 이는 分明히 歷史上 새로운 發展段階에 突入하는 契機가 된 것이다. 또한 거의 外製 輸入品에만 依存했던 電氣工業界는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電氣機器 및 機材의 國內生産이 漸次 可能해져 活氣를 띄기 始作했고 그 後 革命政府의 意慾的인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 따른 電源開發과 需要增大, 各 業體의 施設

擴張, 品質向上 등을 爲한 先進 諸國과의 技術提携 등으로 長足の 發展을 가져왔다. 또한 特別法으로서 電氣工事業法이 制定됨에 따라 建設業에서 分離 獨立한 電氣工事業界도 韓國電力承認制에서 商工部免許制로 移管되면서 免許基準의 強化 等 質的 向上을 爲한 整備作業이 完了되었으며 앞으로 氣氣回復과 함께 全需要의 80%를 차지하는 產業動力의 完全稼動 뿐만 아니라 將次 無數하게 일어서야 할 이 나라의 工業, 그리고 全國에서 4분의3이나 되는 文明以前의 農漁村電化運動 등으로 來日의 展望은 밝은 바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電氣界의 各 分野가 歷史的인 跳躍을 爲한 轉換機에 들어선 現 時點에서 大韓 電氣協會의 誕生은 電氣界가 當面한 諸般 事業 推進의 一元化와 効率化를 爲해서 創立 그 自體단으로도 多大한 意義가 있는 것이며 앞으로 國內 電氣技術 및 經營에 關한 調查研究를 비롯해서 電氣部門의 相互 親睦과 情報交換 등을 通한 有機的인 協助와 發配電事業, 電氣通信機材 生産部門 그리고 電氣 및 通信 工事業界 等의 均等한 發展을 爲한 指導 및 協談體로서도 存在價値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미 組織된 世界 各國의 電氣關係 機構와의 國際的 紐帶를 맺음으로써 우리 電氣人의 地位를 國內外的으로 높이고 急進하는 先進 諸國의 水準에 하루 速히 到達하여 至上課題인 自立經濟建設에 寄與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筆者는 이 機會에 協會가 가져야 할 基本姿勢와 時急性을 띤 몇가지 問題를 論하고 이미 會員이 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會員이 되어야 할 電氣人들의 協會觀에 對해서 一言하고자 한다.

協會는 첫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다른 產業部門에 比하여 電氣界의 個人 또는 團體의 相互交流나 結合이 缺如되어 있는 實情에 비추어 그의 總本山格인 電氣會館을 早速히 建立하여 電氣人의 團結된 힘의 심불이 되게 하고 政府에 對하여 電氣란 工業化의 原動力이요 一國經濟의 基幹的인 要素임을 強調하는 同時에 一般 國民에게 對하여는 現代生活에 있어서의 電氣의 고마움을 鼓吹시켜야 하겠다. 그러기 爲해서는 于先 建立資金의 調達方法이 問題인바 會費, 特別贊助金 및 國庫補助 등으로 하여 不足할 때는 電氣工學徒들을 動員한 汎國民의 募金運動을 展開해서라도 電氣會館建立은 반드시 成就하여야만 될 急先務가 아닐 수 없다.

둘째 現在 電力部門 各界別로 組織되어 있는 學

會, 協會, 組合 등의 指導協議體로서의 權威를 確立하여 相互間的 均等한 發展을 基調로 하여 對立과 反目을 協議, 調節, 解消하는데 率先하여 積極性을 發揮해야 할 것이다. 勿論 傘下 各界別로 協會, 組合 등이 있고 그 單位別로 接觸이 있겠지만 좀처럼 妥結이 되지 않는 境遇 例를 들어 요즘 韓國電力 및 鐵道廳과 電氣工事業界 間에 惹起되고 있는 外線資材 官社給問題라던가 또는 西獨資本의 民間借款政府支保를 둘러싼 電線工業 및 電氣工業界의 深刻한 利害問題, 長時日을 끌고 있는 電信電話工事業을 爲한 特別法 制定, 電氣學會 및 主任技術者協會에서 提出한 7個 建議事項과 未備된 電氣關係法規 改正等 各界別로 死活問題가 달려있는 懸案 諸問題에 對해서 妥當性을 發見하고 共存의 廣場을 마련하여 大局的 見地에서 이를 早速히 打開해 나가는데 果敢해야 할 것이다.

셋째 韓日協定이 國會에서 批准된다고 假定하고 韓日國交 正常化 後에 우리 나라 電氣界에 미칠 影響에 對해서 銳意 檢討하여 適切한 對備策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勿論 政府에서도 施策으로서 國內 業界를 保護하겠지만 日本에 比해 資本, 施設, 技術面에서 顯著히 뒤떨어지고 있는 우리 電氣界가 앞으로 밑몰처럼 들어올 可能性이 있는 日本 電氣界의 陽性的 또는 陰性的인 浸透에 對해서 如何히 對處할 것이며 日本 企業主와 野合 結託하여 나라와 民族을 亡칠 憂慮가 多分히 있는 要素들을 除去하기 爲하여 傘下 會員들의 結束을 鞏固히 하고 主體意識에 對한 教養啓蒙運動을 展開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法的地位 向上과 權益擁護를 爲해서 對政府 諮問 및 建議을 強力히 推進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미 推進中에 있는 「電氣의 날」 制定 「에디슨祝祭」等 國際行事의 國內誘致等 許多한 일들이 山積해 있으나 紙面上 省略하고 다만 電源開發計劃 等の 政府施策에 따라가기에 앞서 電氣에 關係되는 限 國家計劃 및 施策을 恒常 리이드해 나가야 하며 傘下 各 業界가 當面한 懸案問題를 機敏하게 捕捉하여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할 것을 외람되나 당부하고 싶다.

다음 現在 協會會員이 되어 있거나 또는 앞으로 會員이 될 國內電氣人에게 一말하고자 한다.

大韓電氣協會가 電氣人과 一般 國民의 衆視 속에 華麗한 脚光을 받고 誕生된지도 벌써 4個月이 가 있었으나 그 入會率은 極히 不振하며 또한 入會會員들도 物心兩面의 協助가 不足함을 否認할 수 없는 實情이고 今般 會誌 刊行에 있어서도 그 所要經費 全額을 廣告料 收入으로서 充當한다는 말을 들었다.

協會가 아무리 훌륭한 趣旨와 事業計劃을 樹立했다고 하더라도 會員 各自의 物質的 精神的 뒷받침이 따르지 않고서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는 것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不振한 原因이 經濟的인 與件의 탓도 있겠으나 筆者가 京鄕 各地를 通하여 보고 듣고 느낀 바에 依하면 協會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지 않나 생각된다. 即 協會에 加入해서 무슨 惠澤을 받을 것이냐 하는 商業的인 打算에서 나오는 小利에 앞선 말을 많이 들었다.

勿論 엇그제 發足한 協會가 會員에게 당장에 두드러진 物質的인 惠澤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將次 協會의 基礎가 튼튼히 確立되고 計劃된 事業들이 着着 展開됨에 따라 有形無形의 惠澤을 주게 될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會員 스스로가 努力해야 할 것이다.

外國의 境遇를 보면 直接的으로 電氣에 從事하는 個人 및 團體는 勿論 間接的인 聯關性을 가지고 있는 個人 및 團體 例를 들면 市廳 水道課 같은 데까지도 加入하고 있다는 事實은 그들의 巨視眼的인 眼目을 證明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 앞의 物質的 利害打算을 따지기에 앞서 1年 2年後 아니면 當代가 아닌 後孫의 代에 가서라도 입을 惠澤을 期待하고 大我 속의 小我를 發見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

以上으로써 大韓電氣協會의 創立과 첫 事業으로서 試圖되는 會誌發刊에 즈음하여 電氣人으로서의 矜持를 느끼며 協會와 會員의 無窮한 發展을 希願하는 마음에서 외람된 愚見을 開陳한데 對하여 理解를 바라면서 끝으로 2年前에 急逝한 牛·프론티어의 旗手 케네디의 有名한 名言을 빌어 「協會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協會를 爲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모든 電氣人에게 強調하는 바이다.